불교와 기독교

유재신
토론토 대학 교수

서론

불교와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두 종교는 모두 한국에서 천만 이상의 신도를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관점에서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는 대체로 불교(타 종교)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인이 불교를 대하는 관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불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적대시하여야 하고,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모든 종교는 서로간에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불교인들을 더 좋은 불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기독교는 진리의 유일성을 성서의 자기이해에 기초해서 지키면서, 불교를 문화적인 방편으로 받아 들여 자기 성숙에 기여하는 동

시에 불교인을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다.

필자가 취하는 입장은 세 번째 입장인데, 기독교의 유일성을 지키는 가운데 불교를 기독교의 토착화에 기여하는 문화적 방편으로 보며, 특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가 불교를 효과적으로 반대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불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나는 왜 불교를 공부했는가 하는 점을 밝혀 두겠다. 필자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과거 30여 년 동안 불교를 연구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학위 논문은 「초기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연구」였다. 이 논문은 영국에서도 출판되었다. 학위를 받은 후 토론토대학에서 한국의 문화와 종교를, 그리고 동 대학원에서 동양불교를 약 20년 동안 강의했다. 그리고 나는 버클리(Berkeley) 대학의 불교석학 랜캐스터(LanCaster) 교수와 함께 영문으로 한국불교개론(삼국의 불교), 신라불교, 고려불교, 이조불교를 편저하였는데, 이 중 두 권은 버클리 아시아 입문 출판사에서, 다른 두 권은 버클리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출판되었다.

기독교 목사가 왜 불교를 전공해서 학위를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불교 책을 영문으로 저술했는가를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 이유를 밝히려면 내가 미국 유학을 시작했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해트포드(Hartford) 신학대학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갔더니, 당시 영어로 씌어진 종교 문화 관계 서적이라고는 스님과 선교사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70여 년 전에 출판한 「한국불교개론」 한 권밖에 없었다. 이 사실이 나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 유학생이 소수였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한국 이민자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글을 읽지 못하는 젊은이 수십만이 존재하게 될텐데,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우리의 문화와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동양종교, 특히 불교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국종교문화총서를 영문으로 내기로 결심하고, 한국불교, 한국기독교, 한국 천주교에 관한 책들을 영문으로 출판했고 한국 유교는 지금 출판중이다.

내가 불교에 관심을 기울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적인 기독교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의 이해가 요구되며,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선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 이 내용들은 대체로 「목회와 신학」에 연재된 내용들이다. 불교는 지난 2500년 동안에 원시불교, 분파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경전은 여러 가지로 새롭게 편저되어 전해져 왔는데, 한국에서는 8만 대장경이 있으며, 불타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경전들을 후대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 경전의 내용은 각 지방과 나라에서 교리와 의식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소승불교는 '자력'을 강조하는 반면 대승 불교는 '타력'을 강조하고, 초기 불교의 금욕적인 계율과 모순되어 보이는 밀교(密敎)는 인간의 욕망과 '성(性)'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처럼 판이하게 달라진 불교가 한국에 건너와서는 도교나 무당종교와 혼합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것이 불교다'라고 단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기독교는 '계시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성서 한 권'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불교는 자기의 본질을 잃어 가면서 타문화와 타협하여 그 지역에 맞게 적응하는데, 특히 중국의 '선(禪)불교'는 불교의 정신적인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지만 불교의 전통적인 경전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특히 '不立文字'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변용이야말로 불교가 기독교와 다른 점이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타 자신이 가르친 '진리'와 그 대표적인 교리를 기독교와의 관련하에서 다루고, 연후에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우선 한국 불교가 중국의 불교문화와 일본문화에 공헌한 점에 대하여 소묘해 보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한 학자들 중에 중국의 사상·정치·문화 등 다방면에 공헌한 바가 많은데,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학자들이 중국에 살면서 중국문화에 공헌한 자취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1986년부터 연변대학, 북경대학, 중앙민족대학 등에서 초빙 교수를 지니며 또한 초청강연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자료들을 발굴한 적이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문화에 공헌한 한국인들의 활동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헌을 통하여 고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탁월한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했던 한국문화의 단면들을, 문헌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만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원효의 사상이 그의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원측(圓測, 613-696 신라왕손)이 쓴 「解深密經疏」는 인도에서 나온 경전을 주석한 책인데, 이는 티벳어로 번역되어 티벳의 종교문화 개혁과 아울러 중국사상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원문의 중요한 부분이 유실되었는데 다행히 최근 돈황에서 발견하여 원측의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했고, 또한 다시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로, 신라의 왕자 출신인 김교각 스님은 중국 구화산에서 공부하고 승려 생활을 했다. 구화산의 '지장보살'로 덕망이 높았던 그는 사후에 중국 민중의 숭앙을 받았는데, 이태백이 찬시를 쓸 정도였다. 이분은 중국의 민중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로, 三韓人즉 한국인인 天祐和尙은 현 중국불교협회의 본부가 있는 광제사 주지를 지냈으며, 광제자 寺誌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중국불교의 귀한 역사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戒壇을 만들었는데,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계단은 예술적인 조화미가 돋보여 불교예술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광제자 寺誌에는 광위황제와 천우화상이 나눈 대화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 불교인이 중국문화에 공헌한 구체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넷째로, 혜초의 「왕오천축국기」는 불타가 태어난 인도의 다섯 나라를 다녀온 기행기이다. 당시에 중국인들이 인도를 다녀와서 인도기행문을 쓰긴 했으나 민중의 삶을 기술하기보다는 상류사회의 모습을 그렸고 또한 추상적으로 기술했던 반면에, 혜초는 인도의 역사와 인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로써 혜초의 책은 역사적 사료가 빈약한 그 시대 인도의 민중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이 책은 일본에서도 불교의 입문서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불교의 원류는 한국 불교다. 일본에 불교를 전한 분은 백제의 성왕이었고 많은 한국의 고승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승정이 되기도 하면서 불교를 가르쳤다. 일본 불교의 선구자인 쇼오토쿠(聖德)태자를 교육한 분도 한국 승려였다. 그리고 초기 불교 사찰 건축, 불상, 불화 등도 한국의 불교인들의 공헌으로 이루어

진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있어 한국 승려들이 많은 공헌을 했다.

본론

1. 불교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으로 출발

한국에 있어 불교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고려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불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불교인들과 보다 쉽게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력 있게 움직이는 데에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점을 여러 차례 체험했다. 이제 불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1) 불타는 왜 불교를 시작했는가

불타(佛陀)가 불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에서인가? 불타가 태어난 시대의 인도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병합하여 더욱 발전해간 시대로서, 많은 군소 국가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던 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이 시대에 불타가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길뿐이었다.

불타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전한다. 추장의 아들이었다고도 한다. 아마도 그가 큰 나라의 왕자였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자신의 나라가 큰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왕족이 멸절을 당했던 시기를 살았던 석가로서는 정치에 뜻을 두기 보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불타의 아버지, 불타의 아들, 그리고 불타의 친족들이 그의 집단에 가입했고 친척인 아난다가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바로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불타의 계모는 여승교단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친족들이 불교 교단의 중요한 자리를 모두 차지하여 정신적인 '왕국'을 구현했는데, 한편 불교에 귀의하지 않았던 그의 친

척들은 나라가 망하자 모두 죽음을 당했다.

2. 불교는 힌두교를 개혁한 것인가

불타는 당시 인도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상을 활용했다. 예컨대 그는 윤회, 업(業) 그리고 해탈이라는 중요한 관점들을 자신의 사상 속에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도 고유의 윤회와 업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을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불타는 힌두교의 사성제도(카스트제도)를 비판하면서 그의 종교를 발전시켰다. 인도에는 몇 천 년 동안 사성제도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브라만이라는 사제계급(왕족·귀족계급)이 그 사회를 지도하는 가장 존경받는 계급이고, 그 다음으로 크샤트리아라는 무사계급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바이샤라는 평민계급과 수드라라는 노예계급이 존재한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피부 색깔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한다.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만 결혼함으로써 다른 민족과 혼혈하지 않게 되어 종족을 보존하는 동시에 직업이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도 세습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불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성 제도를 비판한다. 브라만이라는 승려계급이 제일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승가는 모두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불타는 또한 힌두교의 '업(Karma)'을 비판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은 각자의 계급에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브라만의 업은 제사를 지내는 등의 종교적인 일을 잘 담당하는 것이고, 무사계급의 업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평민들은 장사를 잘 하거나 농사를 잘 짓는 것이고, 노예계급은 위의 세 계급을 잘 받들어 섬기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업을 잘 쌓으면 죽은 뒤에 좋은 계급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다. 노예계급의 사람들도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보다 나은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의 계급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불타는 바로 이런 점을 비판했다. 그는 '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이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이 중요함을 가르쳤다. 힌두교는 절대적인 윤리이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윤리의 종교인데, 불타는 이를 비판하면서 절대적인 윤리를 강조한 것이다.

불타의 사상은 인본주의적이며, 대체로 무신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神)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신이 천지만물과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비판했다. 사실 힌두교는 신이 지배하는 종교였다. 신에게 제사드릴 뿐만 아니라 브라만 계급에게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천지만물과 동물들까지도 신으로 보았다. 즉, 원숭이나 코끼리도 신으로 보는 범신론이다.

불타는 이러한 유신론적 힌두교를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즉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먼저 '살생'을 금지함으로써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희생제물을 금지하였고, 술을 먹지 못하게 하며, 가무를 금함으로써 힌두교의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오늘날의 '찬불가'와 '승무'는 불타의 이러한 정신과는 무관하며,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불타는 또한 영혼불멸을 부정했다. 사실상 힌두교인들은 윤회를 가장 두려워하였다. 브라흐만(Brahman)은 우주정신으로서 바다와 같은 것이고, 인간은 아트만(Atman)으로서 개인정신을 가리키는데 이는 마치 파도와 같아서 결국은 파도가 바다에 합쳐지듯이 인간도 브라흐만이라는 우주정신에 합쳐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불타는 무아(無我, AnAtman=no soul)를 강조했다. 인간은 순간 순간의 존재이지 영혼은 없다는 것이다. '나'란 존재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몸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죽으면 몸과 육체가 분리되며, 그가 행한 행위 즉 업에 의하여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열반이나 극락에 가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지옥에 가거나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죽음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다시 윤회하여 태어나기는 하지만 영혼이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불타가 죽은 뒤 불타의 장례식은 불교인들이 아니라 힌두교의 브라만들이 치렀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좋은 예다. 다시 말해 불교는 영원히 사는 영혼은 없다고 강조한다.

2. 불교는 기독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불타와 예수의 삶을 비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 우선 출생을 살펴보자. 불타는 '룸비니(Lumbini)원'이라는 동산에서 태어났다. 불타의 출생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흔히 불타 어머니가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동

산에서 해산했다고 한다. 예수와 불타는 모두 집에서가 아니라 집밖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혈통을 보면 불타는 고라사 왕국의 왕손으로 태어났다. 고라사 왕국의 선조는 태양이라고 전하므로 불타는 태양의 아들이 되는 셈이다. 예수 또한 예언자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 받았다. 즉 왕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탄생과 관련된 예언도 비교해볼 수 있다. 불타의 경우 태어나자 아시다 선인이 찾아와 아기의 몸을 살피고 나서 불타가 장차 대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대 종교의 교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뜻을 다 성취할 이'라는 의미의 '싯다르타'로 불리게 되었다. 예수가 탄생했을 때도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이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언했다. 결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데, 불타는 야소다라(Yasaodahara)라고 하는 왕비와 결혼한 반면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1) 불교와 기독교간의 외견상 유사점

구원에 있어서, 불타나 예수 양인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불타가 말하는 구원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고, 예수는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가르쳤다. 또한 불타는 인간이 '자기'힘으로 구원해야 함을 말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쳤다. 불타는 인간 존재를 '고(苦)'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 고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인간 존재는 왜 고통인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므로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고통이요,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고통이요, 영원히 늙지 않고 젊게 살고 싶은데 늙어갈 수밖에 없으니 고통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고통인 것이다.

이러한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 그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이 욕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불타가 제시하는 해답은 간단하다. 욕망을 버리든지 적당히 가지든지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욕망을 버릴 것인가? 지혜와 명상과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기독교에서도 이에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自足)하기를 배웠다"는 바울의 고

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욕망을 버리라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은 서로간에 차이점이 있다. 불교에서 욕망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즉 수도와 명상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힘으로 버리라는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자족이다.

다음으로 출가 혹은 공생애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자. 불타는 29세에 집을 떠났다. 불타가 출가한 원인에 대해서 불전문학에서는 '사문유관(四門遊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성밖으로 산책을 나갔던 불타는 동문 밖에서 허리가 굽은 백발 노인을 보고서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남문 밖에서는 병고에 신음하는 환자를 보고 '병에 시달리는 인생의 괴로움'을 절실히 느꼈으며, 서문 쪽에서는 장사 지내러 가는 상여 행렬을 보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통감하였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몹시 언짢고 괴로웠다. 그러나 불타는 북쪽 성문 밖에서 한 사람의 출가 수행자를 보고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형식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보이는 그 수행자는 해탈의 길을 찾아 출가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이 불타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출가 동기를 극적으로 미화시킨 후세의 표현이다. 불타는 자신의 성도 후에 자신의 출가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으며, 더러움이 없는 가장 평온한 행복의 삶, 즉 열반을 얻기 위해서였다"(중아함경).

그런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30세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유혹 받은 사건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석가는 도를 닦고 깨달음을 이룩한 다음에 유혹을 받았으며, 예수는 40일 금식 기도 후에 유혹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제관계에도 유사성이 있다. 석가도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였고, 예수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선교 활동을 했다. 석가에게 '사리붓다' 또는 '아난다'와 같은 10제자가 있었다면, 예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 석가는 80세에 병사한 반면, 예수는 33세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2) 건널 수 없는 차이점

인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의 타력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많은 보살들이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범신론으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자력구원이 어려운 평신도들을 위한 종파가 형성되었다.

기독교에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자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는 자력신앙을 기독교는 타력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양자간에는 근원적인 진리에 있어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필자가 토론토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박순 이라는 어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전갈이 왔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일했던 분으로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많은 책을 읽었고 스스로도 박식하다고 여기던 분이 암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박순 선생이 필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침대에 누워 있는 그분의 모습은 평소의 건장하던 모습과는 달리 매우 야위어 있었다. 필자는 그분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당신은 평생 불교인으로 열심히 살아 왔으므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오. 불타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했으니,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평생 도안 죄 지은 것이 없어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스님을 불러 불공을 드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죄 지은 것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회개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세례 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른편 강도보다야 박 선생께서 더 낫게 살지 않으셨겠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이니 기도를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으니 기도하라고 허락해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뒤에 다시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목사님을 모시고 세례 받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세례를 받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잘 믿으라고 부탁하고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불교의 교리를 사용해서 독실한 불교인이었던 사람을 오히려 전도한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기독교인보다 불교인이 더 많다고 한다. 우리는 불교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최첨단의 정보화시대

를 받고 또한 그의 아들을 낳게 되어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다. 카스트 제도에서 남자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자는 노예계급의 처녀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 왕자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 아들이 죽자 다시 노예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고다미는 죽은 아들을 안고 석가를 찾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이때 석가는 죽음이 없는 집에 가서 그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노라고 말했다. 이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죽음이 없는 집을 찾아 나섰으나 곧 실망하고 말았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고다미에게 석가는 이렇게 가르쳤다. "어느 집에나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존재한다. 즉 죽음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고통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아이를 살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서 열반에 이르도록 하라."

불교 구원론의 핵심은 불타의 초기설법인 사성체(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에 요약되어 있다. 그 어떤 신의 개입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타는 철저히 인간의 주체적인 자각을 강조한다. 신 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을 배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고유한 체험 속에서 체득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요한 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독교는 타력신앙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수원에 가고자 할 때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기차에 타기만 하면 기차 안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기차 엔진의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한다.

물론 후대에 이르러서는 자력과 타력 이 두 경향을 모두 지니는 쪽으로 변한다. 소승불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력구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 그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민중들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조력자 또는 신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타력구원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스승의 위치에 있던 불타를 하나의 신적 존재로 격상시켰고 인도 재래의 힌두교의 신들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파되는 지역 고유의 토착 신들을 수용했다. 특히 기원 초기의 고대 근동 종교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불타와 예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으나 불타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불타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자력구원을 말하였고, 계율과 명상 지혜를 강조하였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열반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타력신앙을 말하였으며, 믿음과 기도를 강조했고, 석가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보통 사람들을 주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다.

불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의 대부분은 기적을 행하였다. 불타는 계율을 강조하고 예수는 신앙을 강조했다. 불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방편으로 삼아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사상을 빌려왔다. 그러므로 본질이 결여되었다. 또한 인간이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나 신적인 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신이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같은 성질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3).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 구원관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교는 자력구원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타력구원의 종교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서로 다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타는 제자들에게 "나도 믿지 말고 신도 믿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계율을 잘 지켜서 네가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 열반으로 가라"고 가르쳤다. 이는 마치 우리가 수원이라는 도시에 가려고 할 때 자동차나 기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수원까지 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엔진의 힘을 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주는 불교의 전통설화가 있다. 바로 '고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이다. 앞서 지적한 데로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로 인해 엄격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다. 가장 낮은 수드라(노예) 계급에 속한 고다미라는 노예 처녀가 어느 왕가에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 왕자의 눈에 띄어 그의 총애

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선교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종교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이를 잘 이용하여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3. 불교에는 영혼 불멸이 없다

이제 불교에 있어서의 인간관을 언급해 보자. 신관(神觀)은 불타가 세상 떠난 500년 후(서기 1세기 전후)에 대승불교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타의 근본적인 관심은 인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영혼도 없고 나도 없는 불교의 '무아' 인간관

불교에서는 인간을 '무아(AnAtman)'라고 한다. 이는 불교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영혼도 없고 나도 없음(no soul, no self)'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혼이 없다는 것은 영혼불멸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영혼은 영원한 신(Brahman)의 한 부분'이라는 힌두교의 인간관(Brahman-Atman)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영원한 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과 인간에게는 영원한 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고 다만 업(Karma)을 통한 윤회가 시작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무아(無我)'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무아' 사상은 내 것이라는 게 없으므로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한편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보게 하기도 한다.

2) 때묻은 인간의 불성, 깨달음이 필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불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불성(佛性)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覺)이 중요하다. 자신이 불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자와 여우'에 관한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여우들이 모여 사는 어느 한 고을이 있었다. 우두머리 여우가 하루는 깊은 산에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사자 새끼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에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다. 이 사자 새끼는 자라서 마침내 큰 사자가 되었다. 하루는 이 사자가 여우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여우의 우두머리가 "너는 여우니까 여우 흉내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자가 여우들을 따라 큰 호수에 갔는데 물 속을 들여다보니, 여우들은 머리가 작은데 비해 자기는 큰 머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그는 자기가 여우가 아닌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이 사자는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사자들이 사는 산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3) 권선징악적 차원에서 윤회강조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의 윤회관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뒤 그 업에 따라서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고 한다. 모두 여섯 가지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지옥(地獄-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 아귀(餓鬼-굶주림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 곳), 축생(畜生-네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 고기, 벌레, 뱀까지도 포함한 동물의 세계), 아수라(노여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남의 잘못을 철저히 따지고 규탄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세상, 악마의 세계), 인도(人道-인간이 사는 세상), 천도(天道-행복을 두루 갖춘 하늘의 세계)로 나뉘어진다. 이 윤회는 철저하게 스스로 지은 데로 받는다는 자업자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윤회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 즉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윤회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이므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거나 극락왕생하기를 보다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열반의 세계나 극락에 있는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더 치중하였다.

그러면 인간은 왜 고통 중에 사는가? 인간은 불성(佛性)을 지녔는데, 거울에 때가 묻은 것처럼 불성을 잃어버렸으므로 고통 중에 산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위의 우화에서처럼 자신이 사자임을 깨달을 때 성자가 된다고 보았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유교에서는 천지(天地)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불교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도덕적으로 업을 쌓아 구원을 받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데로 대승불교에서는 타력구원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불교인을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이 내재한다.

4) 죽으면 끝, 사후(死後)에도 계속되는 영혼은 없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연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본다. 불교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접착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이나 인간은 인연에 의하여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생사 문제의 경우도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신(心-愛, 商, 行, 識)과 육체(色-地, 水, 火, 風)가 마치 자동차가 조립되듯이 조립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죽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폐차되는 것과 같아서 정신과 육체 모두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한 순간도 같은 때가 없다. 순간 순간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초년, 청년, 장년, 노년을 살다가 죽음이 오면 인생이 끝나는 것은, 마치 영화가 시작되어 필름이 돌아가다가 영화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한다. 즉 우리 자신은 순간 순간이 계속되는 것이고, 죽으면 몸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끝나기에, 사후에도 계속되는 영혼이란 없다는 것이다.

인간관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근본적으로 선했는데, 시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므로 선하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그 선한 것이 더럽혀졌기에 자기 수양을 통해서 다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는 영혼불멸을 믿지만 불교는 무아사상을 강조하므로 영혼불멸을 믿지 않는다. 또한 불교는 인간을 조립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는 창조된 존재로 믿는 점도 상이한 요소이다.

4. '구세주 사상'을 받아들인 대승불교

불교는 크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뉜다. 소승불교에서 아라한(Arahan)은, 도

덕적 수양을 통해 성자가 되어서 죽은 다음에 열반에 든다. 다시 말해 도덕적 계율을 지킨다든지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覺)을 얻고, 죽은 다음에 속세에서 해방되어 열반에 간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원시 불교는 인간의 자력신앙을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불멸(佛滅) 후 약 100여 년부터 대승불교(大乘佛敎, 대승 Mahayana, 큰 수레를 의미)라는 종파가 생겨났다. 대승불교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불교 종파다.

1) 대승불교는 보살신앙으로 타력 구원설 수용

대승불교는 '자비를 통한 구세주 신앙'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특히 보살신앙(Bodhisatva)을 강조한다. 보살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로써 중생을 구원하는 '구세주'같은 분이다. 보살신앙은 보살에게 헌신하고 보살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보살의 도움을 통해 구원을 받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타력신앙을 말한다.

이 보살신앙은 불타를 신처럼 존숭하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불타 생존시에 불타는 하나님 이상으로 존경받았다. 사람들은 불타가 오랜 수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보살신앙은 다신론(비슈누, 시바, 크리슈나 등)인 인도의 토속 신들을 불교적으로 받아들여 정착시킨 신앙이다. 보살신앙은 또한 이란 및 근동의 문화적 영향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불타가 가르친 자력신앙이야말로 불교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대승불교는 후에 불교가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서 보살신앙 등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즉 인간 불타를 신격화해서 우주적인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으며, 불타를 포함한 보살이 필요에 따라 인간을 자비(慈悲)로써 구제하는 타력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불타의 이름만 외우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2) 석가: 도덕적 모범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소승불교는 개인적인 힘으로, 즉 개인의 수도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로서, 여기에서는 엄격한 승단 생활에 의한 수도생활이 요구되었다. 반면 대승불

교는 현실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대승불교는 불타를 신격화하여 많은 보살들과 더불어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소승불교가 인간 석가를 도덕적인 모범으로 간주하였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불타를 예배의 대상으로 보고 불타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불교의 경전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작은 돌을 물위에 놓으면 물 속에 가라앉지만 배 위에는 백 개의 돌을 올려놓아도 가라앉지 않는다. 인간이 이전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불타를 통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불타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 즉 불타를 구원의 큰 배(大乘)로 본 것이다.

불타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서 나쁜 사람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등의 영향으로 기원 초기에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평신도들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으로, 금욕적인 소승불교에서 민중 중심의 대승불교로 넘어갈 때 그 주변의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타는 신으로서, 보살과 더불어 자비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인간의 필요에서 도입된 타력구원은 생명력이 약함

기독교와 대승불교 양쪽이 모두 타력구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는 엄격한 차이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성서에서부터 인격적인 신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실존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실재적인 개념이다.

이에 반해 불교는 원래 인본주의적 자력종교인데, 타력신앙은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 요구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재성을 갖지 못하고 생명력이 약하다. 비록 타력신앙을 강조하긴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불타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신으로서, 절대 타자로서의 신이 아닌 인간이다. 즉 보살을 통한 구원은 인간을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통한 인간구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느 일본의 고승이 불교가 생명력이 부족하고 실재적인 면이 약하다고 보아 기독교로 귀의한 사실은 이런 점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중관파는 불타의 초월성과 인간의 상대성을 강조

이 대승불교에는 세 가지 학파가 있다. 그 가운데서 기원 후 3세기경에 나가르쥬나(龍樹)에 의해 시작된 중관파(中觀派)를 먼저 살펴보자.

불타는 지혜와 명상을 강조했는데 특히 계율적인 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에 반해 중간파에서는 지혜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즉 '초월적인 진리'인 불타는 절대적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 진리이므로 절대적 진리를 상대적 진리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타(他)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관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라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달은 하나이지만 호수에 비춰진 달은 많다. 호수에 비춰진 달은 실재하는 달이 아니라 달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호수에 비춰진 달을 통해서 하늘의 달을 알 수 있다. 실재의 달과 호수에 비추인 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하나이다."

다시 말해 불타는 달인데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타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죽은 것, 중단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같은 것과 다른 것, 나타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으로서 이들은 실재가 아니고 오직 우주적인 불타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본다.

5. 대승불교의 세 학파들

불타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 진리라 보는 중관파에서 들고있는 상대적인 것 즉 방편에 대한 예는 무수히 많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집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집 속에는 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안에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나오라고 외쳐도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과자나 장난감을 보여주며 나오라고 하자 아이가 그 집에서 얼른 나온다는 것이다.

1) 중관파는 가르침을 위해서 극락세계 도입

불이 붙은 집에서 아이를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자나 장난감을 사용하듯이, 극락세계나 열반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실로 들기를 원하는 바이기에 열반을 방편으로 삼아 인간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인간의 죄를 강조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실제 생활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하다. 대승불교에는 신과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원론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왜 이런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첫째 이유는 인간적인 불타를 우주적인 불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둘째 이유는 불교가 평신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비의 종교, 타력신앙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지고 스님과 평신도의 구별도 없어지는 평등한 면이 강조되었다. 셋째 이유는 초기 불교에서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면을 중시한 것과는 반대로 대승불교에서는 경험을 중시하여 경험을 통해서 불타를 만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을 방편으로 간주하면 다른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된다. 그리하여 대승불교에서는 불타가 부정하던 우상이나 타종교(예를 들어 힌두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나라의 대승불교에서는 도교(道敎)적인 요소와 무속(巫俗) 종교적인 요소들을 방편으로 받아들였다.

2) 유식파는 현실적 가치를 부정하고 명상을 강조

기원 5세기경에 바주반두(Vasubandhu, 世親)에 의해 재창된 유식파(唯識派, yogachara)는 모든 것이 이른바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유식파는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며 외부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계는 주관적 생각(心, 識)의 표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종파에서는 세 가지 진리를 말하였는데 환상적 진리,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바로 그것들이다. 환상적 진리는 꿈같은 것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상대적 진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실재로 본다. 그러나 사실 물질적인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즉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즉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절대적인 것은 우주적인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 마음만이 참 진리이고 이 마음의 본체는 우주적인 불타이다. 우주적인 불타만이 진실한 것이다.

불타는 인간의 마음을 비우고 명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명상을 우주적인 마음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유식파이다. 불타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유식파에서는 현실적인 가치를 부정했다. 세속적 가치관을 부차적으로 보았으므로 과학적인 면, 물질적인 풍요, 복지사회 등은 관심 밖의 일이 되어서 유식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발전이 부진함을 볼 수 있다.

3) 욕망을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으로 본 밀교

불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기에 욕망을 버리고 다스리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밀교(密敎)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긍정적으로 보았다. 즉 욕망을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으로 본 것이다.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욕망을 보았고, 욕망과 더불어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불타의 자비의 한 방편으로 보았다. 이는 원래 힌두교에 있는 사상이었다. 요가(Yoga)를 기초로 한 상징적인 제사와 예배를 '밀회'라 했는데 밀회에서는 불타의 초상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기복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점을 치고, 만드라라는 일종의 방언을 사용하여 예언도 하였다. 이 예배에서는 많은 불타나 보살 또는 힌두교의 신들이 숭배되었다. 극단의 성격을 지닌 밀교 좌파에서는 자비를 남자로, 지혜를 여자로 보고 육체적인 성 관계를 통해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요가 실천이라고 보았다. 이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숭배하던 힌두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 점을 밀교 좌파에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불교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면이 심각해져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별히 티벳 불교에는 아직도 이러한 측면이 남아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이 우리 나라의 고려 불교에 영향을 미쳐서 신돈과 같이 타락한 승려가 나타나 고려 불교가 멸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불교사찰에서는 많은 조각상과 그림을 숭배되고 있고 스님들이 점을 치고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방 신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방종교와 혼합되지 않고 기독교의 유일성을 지켜왔다. 또한 십계명과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보듯이 윤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종교임이 분명하다. 이조시대의 경우에도 불교가 받았던 박해로 인해 계율과 고행이 중시되는 소승 불교적 측면이 강조되어, 그 영향이 현대의 불교에까지 이어져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불교는 무속적인 면과 세속적인 면이 결합되어 윤리성이 결여되고 기복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음이 사실이다. 만다라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 밀교의 영향으로 불교 예술이 이 땅에 꽃피우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한국 불교가 왕실 불교로 발전하면서 불교의 퇴폐에 일조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결론

한국 기독교는 불교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대체로 교회 지도자들의 이해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역사적·문화적 중요성 때문이다. 불교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 왕 2년(372)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유입되기 전에 불교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추측되며, 삼국시대로부터 고려말까지 불교는 유교와 샤머니즘과 함께 한민족의 정신세계의 발전과 우리 문화 창조에 기여했던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라도 불교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한국) 불교 속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가 한국 문화에 토착화하여 우리 선조들이 독창적인 한국문화를 이룩하는데 공헌했다. 이 땅의 불교인들은 석굴암, 불국사, 팔만대장경 등을 통해서 독창적인 한국 문화를 이룩했고, 승랑, 원측, 원효 같은 불교학자들은

중국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가 일본문화의 원류가 된 것은 불교문화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불교의 마음을 비우는 깊은 명상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와 잘 조화되면 보다 더 깊은 기도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한국 불교는 원효 사상에 기초한 조화정신을 중시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려 하는 '조계종'이라는 큰 흐름으로 발전시켰다. 개신 교회는 서양의 유산인 교파주의를 지양하고 이러한 포용과 조화의 사상을 방편으로 잘 사용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불교는 건축이나 회화나 석탑 등을 한국적으로 토착화했다. 우리의 교회건물을 비롯한 예술도 한국적인 것으로 토착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적인 왕궁이나 초가집, 기와집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구의 훌륭한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한국 불교사를 살피면 외국 유학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만 공부한 석학들인 신라의 원효, 고려의 진울 그리고 조선의 서산 등이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인데, 이들이 한국적 불교 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불교학자들 일본에서 공부하여 일본 불교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한국의 유학을 주제로 학위를 한 학자들은 서구학자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니, 이제는 한국적인 주체의식과 창조성이 점점 결여되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기독교의 경우도 서구에서 발달한 오랜 신학사상의 전통을 연구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서양 신학을 한국인의 마음과 눈으로 새롭게 보고 이를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섯째, 신라시대의 불교는 단군의 홍익사상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여 발전시켰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을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이롭게 한다는 사상(饒益有情)으로 발전시켜 한국화했다. 또한 한국의 선비사상, 즉 유불선을 하나로 보며 문무를 조화하는 정신에다 불교의 화엄을 수용해서 조화정신으로 발전시킨 것과 같이, 기독교도 성서의 자기이해(유일성)를 분명히 지키면서 동시에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성서적인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토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기독교는 원래 동양종교로서 신약성서는 조건 없는 사랑과 평화정신을

가르쳤는데, 서구문명과 접하면서 투쟁적이고 침략적인 요소가 많아 가미된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기독교 성서가 말하는 본연의 자세(사랑과 평화정신)에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와 조화하여 인간과 나아가 동물과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정신을 방편으로 삼는다면, 인류의 평화에 크게 공헌할 것이며 자연파괴로 야기되는 공해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여덟째, 한국불교는 지성적인 화엄사상과(조화사상) 선행이나 정토 등을 중심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사상을 잘 조화하면서 조계종으로 발전했다. 지적인 화염사상을 실천적인 선과 정토로 흡수한 것이다. 이제까지 서구에서는 희랍 사상의 영향으로 사변적이고 지성적인 신학이 주류(主流)를 이루었는데, 영성적이며 실천적(경험적)인 요소들이 주체가 되고 이에다 지적인 요소를 잘 조화시켜 21세기의 신학을 건설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유달리 박해를 받았던 이조의 불교가 한편으로 기복적인 민중 불교로 흘러간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박해의 시기에 엄격한 계율을 실행하여 성자적인 생활을 한 승려들이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간 사실은, 개신교가 기독교윤리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신자를 배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한국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은 장례삭과 제사에 관련된 것이다. 원시 불교에 있어서 불타는 장례식이나 제사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자기의 장례식도 힌두교에 맡겼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父母恩經 같은 경전을 활용하여 장례식이나 제사를 실시하며 나름대로 토착화했다(납골당을 절 안에 만들어 유골을 안치하고 삼오제를 지냄).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장례식이나 제사(추모예배)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종교혼합에 빠지지 않은 채 성서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 나름의 개발을 한다면 선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제 불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최소한 불타에게만 한정시켜 논의하자면 그에게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대승불교에서 많은 보살들을 우주적인 존재의 근원으로 내세워 다신론 혹은 범신론적인 교리를 가르치지만 결국 신들은 인간의 연장이며 방편일 뿐이다.

둘째, 불교는 윤리문제에 있어서 계율을 강조하고 수도를 가르치긴 하지만, 선악을 초월하는 중도(中道) 사상을 가르치고 인격적인 신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윤리와 국법(國法)을 상대화하여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불교는 각 개인들이 도덕적 계율을 지켜서 깨달음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보살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때 이상적인 불국이 건설된다고 가르치지만, 현실적으로 불교는 자유, 민주, 평등을 향한 정치와 사회의 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이나 복지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며, 동서양이 서로 만나는 세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불교는 사찰이나 석굴 그리고 범종 등에서 보듯이 예술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에 경도 되며, 또한 모든 것이 방편에 불과하므로 '생명력'과 실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은 모든 것을 인과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므로 이로 인해 창조성과 진취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섯째, 불교가 자기 본질을 잃고 타종교와의 혼합한 것은 분명히 비판되어야 한다. 한국 불교의 무속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불교는 자신의 윤리적인 본질에서 떠나 혼돈한 상태 속에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일곱째, 고(苦)에 대한 불교의 염세적인 철학의 영향으로 불교국가는 대체로 가난하다. 반면에 기독교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즉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근대 과학문명을 발전시키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기독교는 성서의 자기 이해를 통한 유일성을 양보함이 없이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방편으로 선별 적용해서 한국적인 기독교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나가면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요소를 연구개발함으로써 선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불교를 반대하든지 혹은 문화적으로 불교를 활용을 하든지 간에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